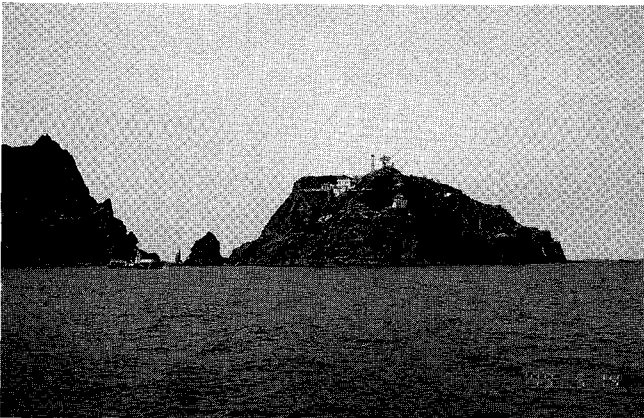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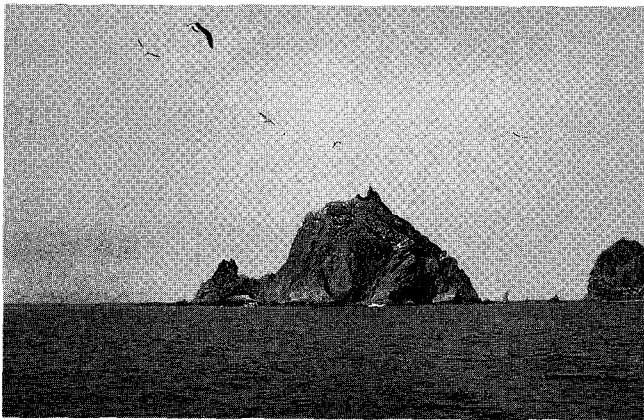


독도의 바다자연과 국토관리

김 기 태 / 영남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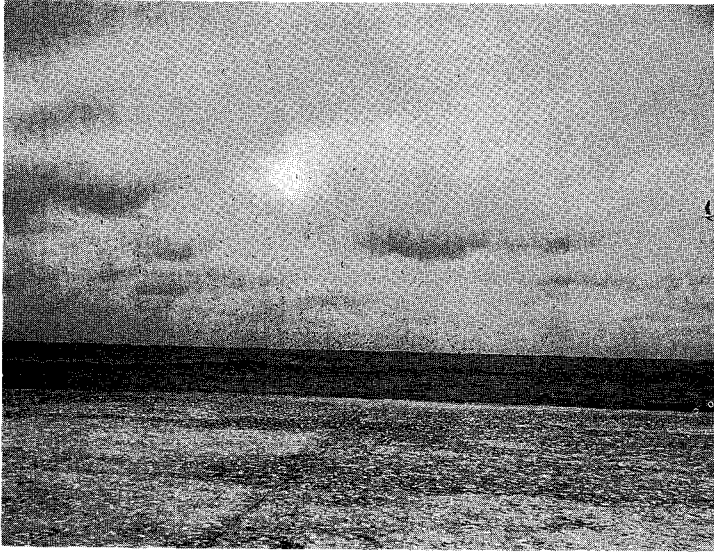


독도의 면모

독도는 실제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관리하고 있는 고유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일본과의 영토권 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인식의 변화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 국토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상징하는 바가 지대하다.

실제로 독도는 어업전진기지로서의 기능 발휘와 대화된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근한 거리의 해역으로서 막대한 경



독도 연안에서 비상하고 있는 팽이갈매기 떼

제성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 수비대의 임무는 우리 국토로서 확고한 수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에 힘의 우위를 내세워 강제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로 편입시켰던 것을 빌미로 독도의 영유권을 악착같이 내세우며 한치의 양보도 않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도 국제법이 없고, 역사적 증빙자료가 적거나 없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는 옛날부터 한국으로부터 내버려진 무인도라는 것을 빌미로 근세에 이룩된 군사력의 우세를 내세워 해양수산자원의 무한한 경제성을 독차지 하려는 기본전략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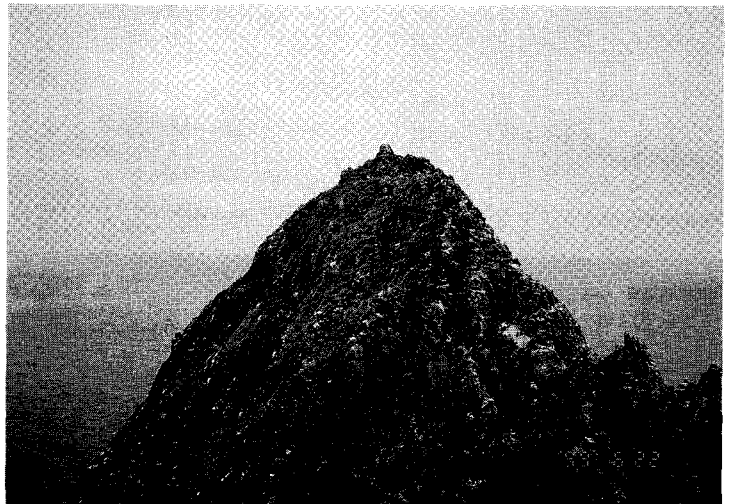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유인도 정

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써서 독도가 한국 영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유인도 정책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우리는 적지않은 인력의 상주로 실질적으로

유인도화 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가 국제적으로 유인도로 인정받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유인도로서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이 있다.

① 독도 섬 자체에서 식수가 생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물골이라는 샘물이 있다. 지하수로서 서도의 서쪽해변에 있는 바위의 균열부분에서 유출된다. 그러나 바닷물과 섞여 나오므로써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식수원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

② 독도 육상에 수목이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독도는 화산암으로서 토양이 극히 빈약하다. 그러나 5,



독도의 육상은 팽이갈매기의 보금자리

6월의 식생을 보라. 바람이 심하기는 하지만 대단히 온화한 기후와 충분한 강우량 그리고 적당한 일조량으로 이 섬의 초본류 식생은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현재 극히 소수의 목본이 있으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심해의 해안기후에 자생할 수 있는 해송류의 번식은 충분히 가능하고 유인도 정책을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③ 독도에 주민등록이 된 2가구 이상의 주민이 살아야 한다. 최근 일본 시네마현의 어부들이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고 우리 국민들은 흥분하고, 너도나도 주민등록을 독도에 옮겨 놓으려는 충정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독도에 발을 디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독도에 가면 갈수록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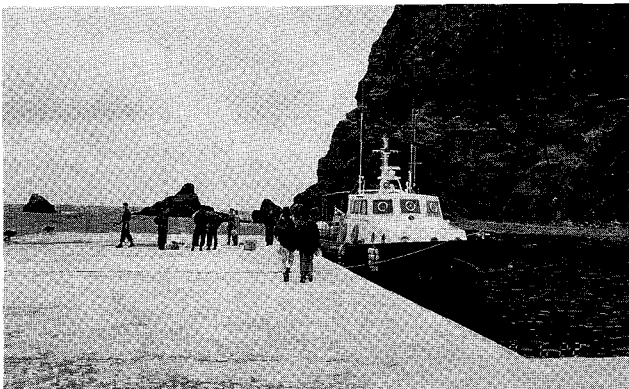
의 자연은 파괴되고 황폐화될 것이다. 따라서 충정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우선 유인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하여야 하며,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충분 조건을 확실하게 조성해야 한다.

현재 울릉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독도 연안의 어업권은 독도에서 생활할 어업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유인도 정책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에 여러 가구의 어업인이 거주하여 생활할 수도 있으나 섬 자체의 자연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서너 가구만 이주하여 생업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면 유인도 정책에 합당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생활권을 개척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도 근해는 물론 독도 연안은 해양생물의 보고이고, 이것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어로작업을 하여 소득원으로 삼는다면, 실제로 독도로 이주를 희망할 어업인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국심에 불타는 극소수의 선민을 독도에 정착시키는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확보는 이성과 같은 유인도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국토개발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경수비대와 경찰관은 꼭 필요한 인력만 상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독도의 생활은 더없이 불편하고 악조건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지구상에는 악천후 또는 대단히 불리한 해양의 어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예로서 북극권 알라스카 해역의 어로활동이나 남극권 우수아리아 해역에서의 어로활동은 수많은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무진장의 수산자원을 개척하면서,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에 만족과 보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양자원 개발분야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최근에 완성한 독도의 접안시설과 실험선의 전경